

## 일본의 양계소식

윤 병 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전임연구원  
농학박사



### 산 란 계

#### 4종 5혼합 백신 「NBmET」 신발매

(주)인터베트는 종계와 산란계용 뉴캐슬병, 전염성기관지염 2가, 산란저하증후군- 1976 트리뉴모 바이러스 감염증 혼합(오일아주밴드 추가) 불활성 백신 『노블리스 TRT + IBmulti + ND + EDS(통칭 NBmET)』를 9월에 발매하였다.

NBmET는 종래의 『노블리스 IB multi + ND + EDS』에 트리뉴모 바이러스 감염증 불활성백신 『노블리스 TRT inac』의 항원을 추가한 4종 5혼합 백신이다.

뉴캐슬병, 전염성기관지염, 산란저하증후군-1976의 예방과 닭의 트리뉴모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증상과 산란율저하 예방효과를 발휘하여, (1) M41주와 249g(구 274)주 2종의 IB항원으로 폭넓은 IB 발생을 방어할 수 있다. (2) TRT바이러스감염에 의한 호흡기증상과 산란율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등의 특징이 있다.

TRT가 전국적, 세계적으로 침투한 최근의 보고가 있어 『노블리스 IB multi+ND+EDS』와 『노블리스 TRT inac』을 동시이부(同時異部)접종한 비교시험에서 양호한 성적을 얻었다.

사용법과 사용량은 종계 또는 산란계의 흥부근육내에 1수당 0.5ml 주사하면 된다. 포장은 500ml 병에 넣어 1,000수를 접종할 수 있다.(계명신문 발췌)

#### 2010년도 세제개정에 주택수준의 과세요청

농림수산성이 11개 농업단체로부터 2010년도 세제개정에 대한 요청을 들었는데 양계관련기관에서는 일반사단법인 일본계란생산자협회(JEPA)가 양계생산자가 안정적인 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세제개정에 대하여 다음의 4 가지 사항을 요청하였다.

(1) 복수연(複數年)통산과세방식 채택- 양계는 라이프사이클이 1년 반에서 2년으로 사용기간이 길고, 사육하는 닭의 연속도입(연 3~10회)으로, 일년을 초과하는 경영단위로 되어 있으며, 계란의 가격도 매달, 매년별로 크게 변동하는 특수성이 있어 통산과세방식에 의한 세제로 변경되기 바람

(2) 계사 등의 고정자산세에 대해서는 생산자재 등의 국내외가격차를 고려한 과세방식- 축사는 해외와 달리 주택과 동일한 건축기준법이 적용되어, 설비투자액, 자산 평가액도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어 축사 평가액이 경감을 희망

(3) 양계용지의 과세방식이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농업용지와 같은 통일된 과세- 양계를 포함한 축사는 경종농업과 같이,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2차 산업과는 크게 차이가 있어 그 생산성은 결코 높지 않으므로 농업에 대한 업종간 공평성 확보

(4)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를 계속 유지하는 제도의 정착- 양계와 같은 중소영세기업은 자금 면에서도 커다란 위험을 동반하므로 중소기업투자세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고하는 것이 중요함(계명신문 발췌)

## 육 계

### 계분을 이용한 사료용 쌀 생산

(주)니치레이후레쉬사의 자회사에서 일본 순종닭 『준와계(純和鶏)』를 생산하는 니치레이후레쉬팜과 이와데(岩手)쌀 생산자, JA신이와데, 니치와(日和)산업(주)와 공동으로 “계분을 활용한 순환형농축산업”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니치레이후레쉬는 상시 20만수의 일본산 육계용 닭 『준와계』를 사육하여 1일 약 12톤의 계분이 발생한다. 이 회사에서는 작년 7월에 퇴비화기간이 24시간 이내의 고속계분처리장치 「SK-1」을 도입하여 계분처리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금년 봄부터 이 계분퇴비를 JA신이와데를 거쳐 가루마이마치(輕米町) 쌀 생산자에게 판매하여 사료용 쌀을 대신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금년 사료용 쌀 생산지의 니치레이후레쉬용 사료용 쌀 재배면적은 25ha로 5월 재배를 시작 10월 27일 마치조(輕米町長)와 니치레이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용 쌀 벼베기』 행사를 거행하였다. 생산된 120톤의 사료용 쌀은 JA이와데 쌀 센터에서 건조와 탈곡 처리하여 니치와산업 하찌노에(八戸)공장에서 배합사료로 제조하여 2010년 1월부터 급여하여 3월에 사료용 쌀로 사육한 순종닭이 매일 5,000수씩 출하될 예정이다.(계명신문 발췌)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법에 관한 요청

2004년 일본이 79년 만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발생으로, 발생 농장의 닭살처분 및 주변양계장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양계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양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업계로서는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하루 빨리 대책마련을 일본양계협회와 일본계란생산자협회가 공동으로 농림수산성에 부탁하였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급속진단법을 EU에서 이미 실용화되어 실시되고 있는 리얼타임PCR법을 즉시 도입·실시할 것. 2. EU에서 시행중인 리얼타임PCR법은 바이러스의 분리·동정에 의한 진단법과 동일한 정확진단법으로 확립하여 하루빨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할 것(일본 양계협회 발췌)

### 중계장부터 도계장까지 ISO 22000 취득

닭고기 계열회사인 요네구도학구(米久東伯)(주)는 지난 9월22일부로 모든 중계장과 부화장 실용계농장, 도계장, 렌더링 공장까지 식품안전 유지시스템의 국제규격 『ISO22000』의 인증을 취득하였다. 인증의 적용범위는 「어린닭의 사육과 도계」 「식용 닭고기 오일제조」 「닭사료의 제조」로 이 회사 생산공정의 최초에서 최후까지 거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ISO22000 인증에 대해서는 작년 4월 인증취득활동 개시를 선언하고, (사)일본육계협회(日本食鳥協會)에 『ISO22000 도입 안내서(일본산닭고기 품질향상추진사업)』등을 활용하면서 준비하였다.

약 1년 반의 단기간에 인증취득에 전념했던 차요시(茶吉英世)사장은 「ISO인증의 취득에 따라 식품의 안전·위생관리에 대한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도 높아져 이전과 더하여 『안전·안심의 닭고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계명신문 발췌) **양계**